2015-CR-04-05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5-05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

최영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

연구책임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질적 변화로 학생에게 소수자 향한 열린 사고 가르쳐야

제노포비아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들은 주변에서 쉽게 외국인을 접할 수 있다.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경제 상황, 개인적인 문제들이 맞물려 한국사회 한국인들의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과의 관계에 따라 이러한 제노포비아적 성향이 심화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인의 제노포비아

한국인의 제노포비아적 성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은 특정 국가/민족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성향이라기보다는 특정 국가/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둘째, 강한 민족주의 성향도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오히려 이러한 성향을 부추기기도 한다.

넷째, 외국인 집중거주지에서 제노포비아적 성향이 심화하여 나타난다.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질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정책 프로그램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이며 제한적이다.

낯선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향한 열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다문화 이해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1 서론 2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02 서울시 외국인 정책 6
1_서울시 이주민 현황 6
2_서울시 외국인 정책 11

03 다문화 수용성과 제노포비아 16
1_다문화 수용성 16
2_제노포비아의 개념과 현상 19

04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 26
1_제노포비아 인터뷰 개요 26
2_제노포비아 인터뷰 내용 및 분석 28

05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42
1_소개 42
2_서울 A 고등학교 참여 관찰기 45
3_서울 B 유치원 참여 관찰기 50
4_다문화 이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06 결론 54
1_연구결과 54
2_정책제언 55

참고문헌 58

표

[표 2-1]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분포(2015) 10

[표 2-2] 2014년 서울시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결과 12

[표 2-3] 2015년 서울시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방향 13

[표 4-1] 인터뷰 내용 26

[표 4-2] 인터뷰 대상자 27

[표 5-1] 2014년 운영실적 43

[표 5-2] 다문화 이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그림

[그림 2-1] 2006~2015 이주민 증감 인원수 6
[그림 2-2] 체류유형별 이주민 증감 인원수 7
[그림 2-3] 국적별 이주민 증감 인원수 8
[그림 2-4] 국적에 따른 체류유형별 이주민 9
[그림 5-1] 서울시 A 고등학교 수업 현장 45
[그림 5-2] 서울시 A 고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나라소개 46
[그림 5-3] 서울시 A 고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마침 46
[그림 5-4] 서울시 B 유치원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시간 50
[그림 5-5] 서울시 B 유치원 다문화 이해교육: 전통의상 입어보기 50

01

서론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01 | 서론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 지구화로 인한 이주민[1]의 급증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현대사회의 이주는 그 목적과 이유도 다양해 노동, 결혼, 은퇴, 난민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사회의 빠른 산업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1980년대 말 정치적인 변화로 중국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와 맞물렸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곧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어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이혜경, 1994). 외국인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의 지위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결혼, 동포, 유학, 난민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한국사회의 이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주민이 정주의 형태로 이주국에서 거주하게 되자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명명되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로 한국정부는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제노포비아'들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제노포비아들의 '반다문화주의' 주장은 담론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2003년 10월 '다문화 바로보기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에 총 4개의 '반다문화', '반이민'을 주장하는 조직이 생겨났다. 현재 일인시위 등과 온라인 카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최근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 반대서명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래 한국사회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노포비아의 문제점을 해

---

[1] 이 글에서는 현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이주민으로, 단기·장기 체류자는 '외국인'으로 칭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자료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인용할 때에는 원문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에는 특히 이러한 '제노포비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일인 시위 등의 적극적인 공격 행위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 미래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양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주민과의 갈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과 제노포비아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며, 서구사회가 이미 경험한 제노포비아 현상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제노포비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의 외국인 현황과 외국인정책을 설명하며, 제노포비아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제노포비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 공동체 안에 다른 인종적, 민족적 특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수용의 정도를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제노포비아는 이와 상반된 개념이다. '접촉'과 '두려움'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사회 제노포비아로 명명되는 외국인 혐오증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단순한 해외체류 경험,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거주지에서의 경험들이 이들이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갖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구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다문화 수용성과 제노포비아에 대한 문헌연구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40대 남성과 여성 일대일면접과 그룹면접을 병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하고자 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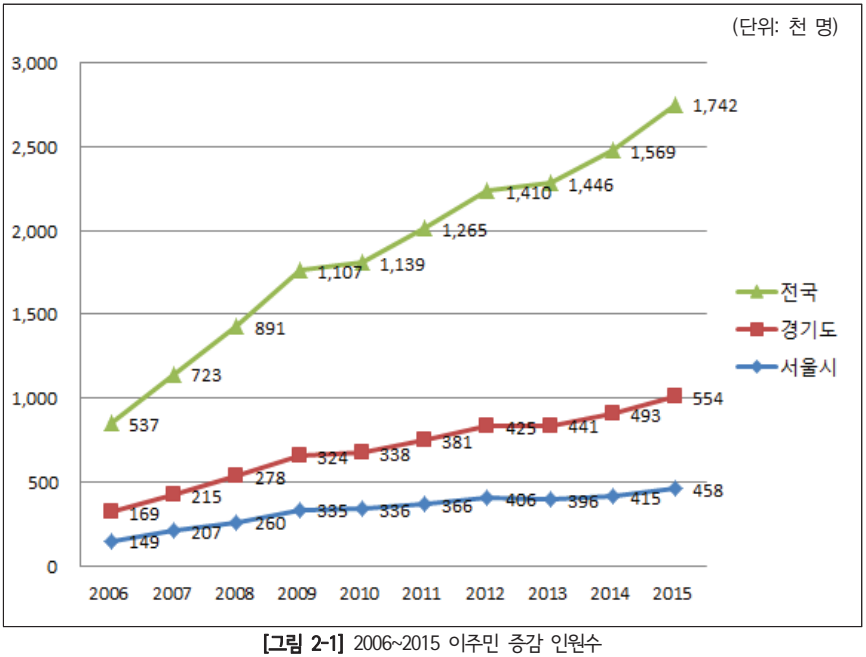
서울시 외국인 정책

1_서울시 이주민 현황
2_서울시 외국인 정책

02 | 서울시 외국인 정책

1_서울시 이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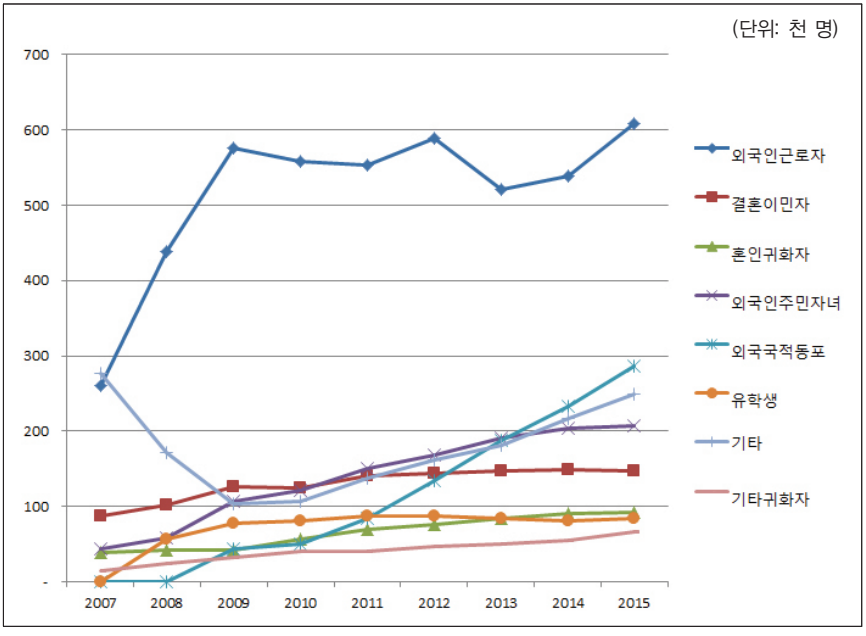
2015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전국 약 170만 명에 달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상당수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 대비 약 26%의 이주민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외국인 증감 추세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이주민 100만 시대에 돌입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이주민 증감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 2006~2015 이주민 증감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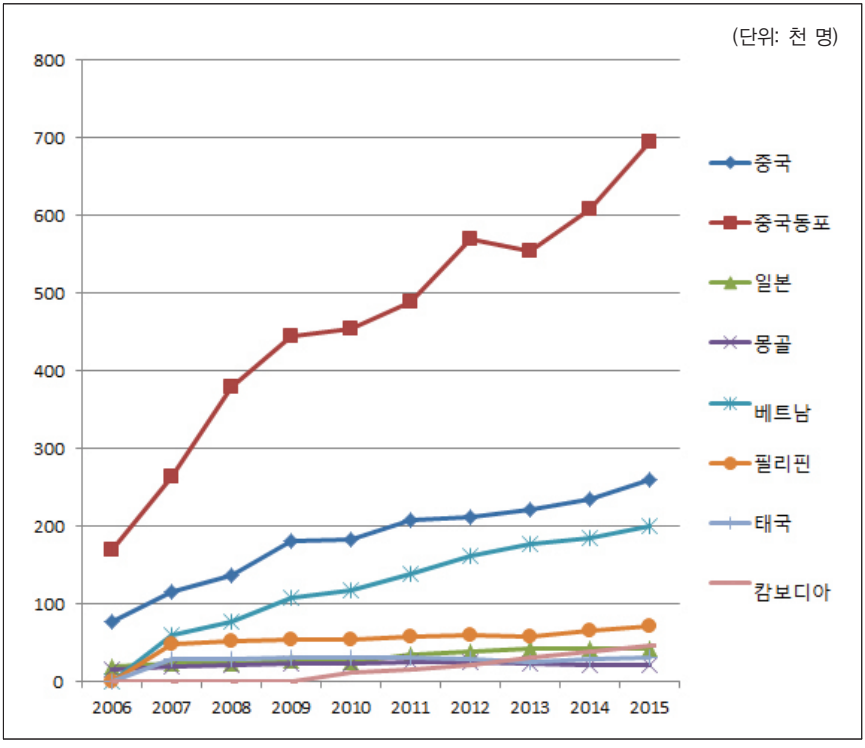
자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2006~2015

체류유형별 이주민 증감 인원수를 살펴보면, 2007~2009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2009년 이후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는 2007~2015년까지 증감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주민 자녀(외국인주민 자녀),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출산으로 인한 이주민 자녀(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 방문취업제의 도입에 따른 동포들의 귀환,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 등이 체류유형별 이주민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체류유형별 이주민 증감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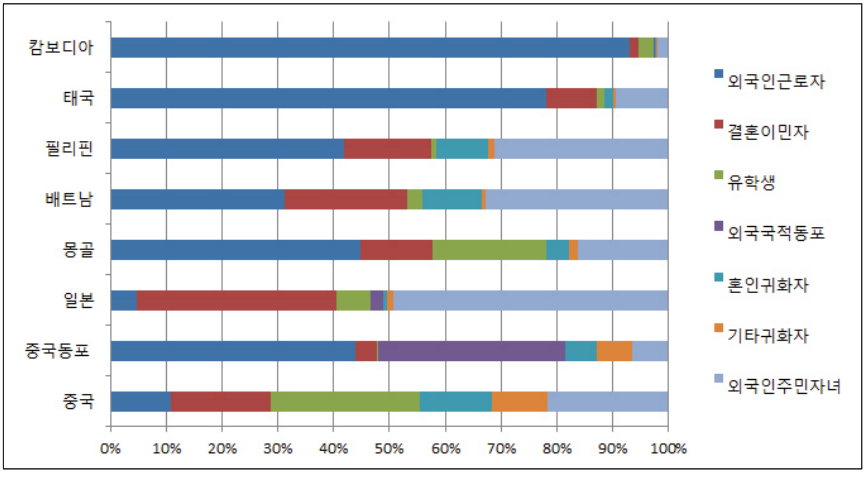
자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2007~2015



[그림 2-3] 국적별 이주민 증감 인원수

자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2015

국적별 이주민의 증감은 [그림 2-3]을 통해 알 수 있다. 2006년 이후, 중국동포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 베트남 국적 이주민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로 다른 국적 이주민의 수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캄보디아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2-4] 국적에 따른 체류유형별 이주민

자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2015

국적에 따라 체류유형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캄보디아, 태국 이주민은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국동포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40% 안팎이다. 또한 일본 이주민은 결혼이민자와 이주민자녀(외국인주민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국적에 따른 체류유형별 차이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룹, 두 번째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비슷한 분포로 나누어진 그룹, 세 번째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다.

[표 2-1]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분포(2015)

(단위: 명, %)

구분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자녀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기타
전국	1,741,919	608,116 (34.9)	147,382 (8.5)	92,316 (5.3)	207,693 (11.9)	286,414 (16.4)	84,329 (4.8)	315,669 (18.1)
서울	457,806	116,817 (25.5)	28,707 (6.3)	17,751 (3.9)	29,790 (6.5)	116,027 (25.3)	32,226 (7.0)	116,488 (25.4)
경기	554,160	228,836 (41.3)	40,578 (7.3)	26,076 (4.7)	52,815 (9.5)	100,221 (18.1)	10,241 (1.8)	95,393 (17.2)

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2015

서울시의 이주민 유형별 분포를 전국과 경기도와 비교해보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다소 낮고,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의 비율도 전국이 16.4%, 경기도가 18%인데 반해, 서울시는 25.3%이다. 중국동포 집중거주 지역인 대림동 일대를 비롯하여 동포 집중거주 지역이 서울에 많이 밀집되어 동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_서울시 외국인 정책

2012년 11월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며, 정책의 목표로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통한 개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의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이 꼽혔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외국인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은 단기체류 외국인[2], 장기체류 외국인[3], 국적취득자[4]이다.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과제는 개방 8개, 통합 49개, 인권 46개, 안전 4개, 협력 1개로 통합과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외국인관광택시 운영, 둘째, 비즈니스 종합상담, 외국인주민 무역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운영, 셋째, 만 3세~만 12세 이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예방접종), 교육(이중언어교육), 복지(모래놀이치료) 사업 실시, 넷째, 거주 외국인 대상 화기사용법(분말소화기 체험),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지진, 풍수해, 연기체험 등 안전사고대비 안전체험 실시, 다섯째, 중국동포 다수 거주 지역에 골목길 청소 등 '깔끔이 봉사단'운영 등이 있다.

주요정책과제는 주로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전 기초교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친지방문,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3 취업, 유학 등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거주하거나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4 외국인 중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

[표 2-2] 2014년 서울시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결과

시설구분	주요기능	이용현황
서울글로벌센터(1)	외국인대상 서비스 제공	83,000건
서남권글로벌센터(1)	외국인대상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제공	25,000건
글로벌빌리지센터(1)	지역별 거주외국인 맞춤형 생활상담 등 지원	17,650건
글로벌문화체험센터(1)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정보 제공	143,000건
글로벌비지니스센터(2)	외국인 창업·투자 등 비즈니스 종합지원	2,513건
외국인근로자센터(6)	외국인근로자 노무·세무 담당	105,300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	한국어교육·취창업 지원·생활상담	135,000건

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2015

2014년 주요과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주민이 살기 편한 도시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인종합지원시설인 서남권글로벌센터가 2014년 9월 개관하였으며, 외국인지원시설 기능별 운영 활성화 및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립·정착을 위해 「다행복 서울플랜」 추진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는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 고급반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일자리 연계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는 다문화·외국인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자녀 학교생활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문학습지 확대 운영과 생애주기별 교육동화집 시리즈 제작 및 배부를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업을 위해 다문화마을 공동체 추진과 다문화 인식개선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밖에 소외 외국인 희망 나눔 정책 추진을 위해 소외 외국인을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과 외국인 생활불편 살핌이 활동 강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인원을 증가시켜 왔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교육을 확대 추진하였고,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하였다.

[표 2-3] 2015년 서울시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방향

주요 과제	내용
외국인주민이 살기 편한 환경조성	• 글로벌서울종합계획 및 대림동 차이나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 외국인지원시설(동대문글로벌센터, 다드림 문화복합시설) 신설 • 서울글로벌센터 네트워크 운영 내실화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및 서남권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수요자중심 외국인 서울 타운미팅·정책간담회 개최
외국인주민 대상별 맞춤형 정책 추진	• 외국인주민 10만 무역인 양성 추진 • 결혼이민자 자립·정착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 외국인근로자 자립역량 향상 지원(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 외국인 비즈니스·창업 활동 지원(글로벌비즈니스센터, 외국인 인큐베이션오피스 운영) •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유학생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인턴십, 자원봉사단 운영) • 다문화자녀 교육환경 조성(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중도입국 자녀 중점기관 운영)
인권강화 및 인권존중 기반구축	• 외국인주민 인권전문상담 창구 운영 • 외국인주민 인권사업 추진 및 쉼터 운영 지원 • 외국인주민의 언어소통 불편 해결을 위한 체계적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소외 외국인을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 • 국제결혼 건전화 및 중개업 관리 강화 • 위기 다문화가족 예방 및 안전망 구축 •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사업 추진 •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집중 지원 •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및 다문화가족 자조모임·학부모커뮤니티 지원 • 외국인 벼룩시장 운영 내실화로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문화소통·공감대 형성 • 외국인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로 내·외국인이 함께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더불어 사는 서울 정립

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2015

서울시는 이주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적별·체류자격별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공존함으로써 다문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국제이주 경향 심화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회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국가별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사회 이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역차별 및 외국인 범죄 등을 이유로 사회 일각에서는 반다문화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이주민 인권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외국인정책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사업과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그리고 외국인 벼룩시장 운영 내실화로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문화 소통·공감대 형성, 외국인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등이 이주민과 한국인 주민 사이의 낯설음을 없애고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또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등을 없앨 수 있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과 프로그램 등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03

다문화 수용성과 제노포비아

1_다문화 수용성

2_제노포비아의 개념과 현상

03 | 다문화 수용성과 제노포비아

1_다문화 수용성

1) 다문화 수용성의 정의

이주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대사회는 국경과 국적을 초월해 나와 다른 남, 남과 다른 나와 함께 공존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질수록 구성원 간 갈등의 양상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게 되며, 서구사회는 이미 여러 형태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접촉 단계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선주민이 관용의 덕목을 내면화하여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김남국, 2010).

웬디 브라운(2010)은 관용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열린 태도이며, 이주민 문제 역시 선주민과의 갈등 상황에서 흔하게 관용담론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주의적 원리들의 보편적 지위에 도전하는 사회 내부의 집단과 초국가적인 비자유주의 세력을 연결·결합시키고 이 둘을 동시에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관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외부에 존재하는 민족과 타자 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낸다(웬디 브라운, 이승철역, 2010).

이주민을 향한 선주민 사이의 이러한 관용담론은 '다문화 수용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정부의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정책을 인정하는 정도로 다문화 수용성을 정의한다(Bechetti, Rossetti, and Castriota, 2010; 이자형·김경근, 2012). 그러나 국내의 대다수 학자는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받아들임이라기보다 이주민을 향한 선주민의 태도 정도로 규정하였다. 황정미 외(2007)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향하고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윤인진·송영호(2011)는 다른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도로 규정하였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동질감을 느끼고, 이러한 집단을 내집단으로 구별하는 반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외집단으로 규정짓는다. 선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이주민은 외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외집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되며 이것이 외집단과 내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유승무·이태정, 2006).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 집단과 집단 간의 거리감 또는 다수와 소수 간의 거리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감, 민족정체성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인구학적인 특성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오영삼 외, 2014; 김상학, 2004).

집단의 특성이 개인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가치관이 합쳐져 집단의 특성을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에 한 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문화 수용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같은 공동체 내 구성원들 간의 공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감을 Westie(1952)는 주거, 권력위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적 거리로 구별하여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2) 다문화 수용성의 결정요인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황정미 외(2007)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향성이 연령대에 따라 다름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20~30대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개방적 지향성을 갖고 있지만, 40대 이상부터는 제한적인 지향성이나 부정적인 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교육수준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자형·김경근(2012)은 교육수준이 그 자체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종족정체성, 위협의식, 사회적 거리감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명진·최유정·최샛별(2010)은 교육수준과 사회적 거리감의 상관관계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타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작으며, 고학력 중산층은 오히려 이국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해석했다.

윤인진·송영호(2011)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혈통이나 출생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시민정체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동기(2010), 황정미(2010) 등은 다문화 수용성과 교육수준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교육과 관용의 관계에 대해 고학력자일수록 관용의 가치를 내면화하며(Federico, 2005), 이것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Vedlitz and Zahrabn(2007)은 교육과정에서 관용을 의식화하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심어주고 이것은 외집단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경근(2015)은 "교육수준은 교육경험을 통해 다문화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과 같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에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을 한국 교육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교육이 관용을 내면화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문이다.

안상수(2012)는 사회계층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계층이 낮을수록(소득수준과 직업)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반면,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장승진(2010)은 사회적 계층과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와 무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육수준과 사회적 계층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주민과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주민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더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성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자형·김경근(2013)은 거주지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는데,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다는 것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김혜순·이시철(2014)은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 위협의식을 더 많이 느낄 개연성을 보여주었다. 원숙연(2011)도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에서 외국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던 선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을 밝혔다. 해외 거주경험이나 접촉빈도는 다문화 수용성과 무관하거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자형·박현준·김경근, 2014).

2_제노포비아의 개념과 현상

1) 제노포비아의 개념

다문화 수용성을 선주민이 상이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한다면, 제노포비아는 이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노포비아는 특별한 것,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비이성적인 증오 또는 두려움을 의미한다(Steenkamp, 2009). 인종차별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인종차별이 피부색 등과 같이 외모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인 데 비해, 제노포비아는 지역, 문화 등에서 나오는 이념과 정서적인 차이에 대한 반감으로 구별할 수 있다(김용신, 2014; 2012; 허경미, 2014).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노동력의 이동과 난민 유입에 따른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보다 이주민을 향한 제노포비아라고 볼 수 있다(임종헌, 2006).

이러한 제노포비아의 원인규명 방법은 두려움이론과 접촉이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려움이론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종교와 문화, 인종 등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속하지 않은 집단을 향한 혐오로까지 이어진다는 이론인데 반해, 접촉이론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절대적인 접촉 기회의 부족으로 적대감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접촉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에서 독일의 제노포비아의 원인이 구동독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이유는 구동독인들이 구서독인들에 비해 이주민들과의 접촉기회가 더 적었기 때문이며 러시아인 중 소수 비슬라비인들 사이에서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접촉기회 부족을 제노포비아의 원인으로 진단하였다(Ommundsen, 2013; Kraus, 2010).

또한 유럽의 제노포비아를 정체성 상실과 불안감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분석하였으며, 선진국에 이주한 외국 인력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현상이라고 해석하였다(장명학, 2006; Shore, 1997).

제노포비아는 흔히 민족주의, 인종주의, 정치·경제·사회·제도적인 요인 등과 함께 결합하기도 한다. 민족주의는 유럽사회의 반유대주의, 인종주의는 호주의 백호주의, 정치적 요인은 미국과 유럽사회의 이슬람혐오주의, 경제적 요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학살폭력사태, 사회적 요인은 한국의 중국동포 차별, 제도적 요인은 러시아 이민법 등을 사례로 거론할 수 있다(김용신, 2014).

2) 독일의 제노포비아 현상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강하게 남아있고, 이주민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의 이유로 많은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서독과 동독의 분열, 동포들의 대거 귀환 등이 한국사회의 이주민 구성과 유사하다.

독일은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이질성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은 동·서독 간뿐만 아니라 독일 내 거주하는 이주민에로까지 확대됐다.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일방적인 이주민의 수용을 뜻하는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시행되었으며 이것은 국적법이 순혈주의에 입각한 속인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 독일의 동화정책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정주하는 이주민이 늘어나자 이에 반발하는 집회 등도 늘어나기 시작하였

다. 난민수용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반대집회는 주로 민족민주당(NPD) 등 극우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난민수용반대 집회에 맞서 난민수용을 적극 지지하며 독일이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반극우주의 집회를 독일의 중도우파인 기독교민주당(CDU)과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 등이 개최하는 등 극우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공존한다. 다수의 독일인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노동시장 침체 및 노동력 감소로 미래의 독일사회를 염려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독일의 이러한 노동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본다(허경미, 2014: 242).

최근 독일은 페기다(Pegida) 조직이 새로 결성되어 적극적인 시위를 펼쳐 심각한 사회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반이슬람주의를 외치는 시위대이며, 이들 조직에 인종 차별주의자와 극우세력이 합세하면서 나치를 찬양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페기다의 대표는 난민을 "쓸모없는 인산을 비하"하였고, 이들은 독일의 주요도시인 베를린, 드레스덴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한정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선별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은 이러한 페기다 운동에 반대하는 반대세력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페기다 시위를 압도하는 규모로 형성된 이들 반페기다 집단은 독일의 사민당, 좌파당, 국제앰네스티, 독일 노동연맹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데 앙겔라 메르켈은 이들 페기다 세력을 향해 "페기다 세력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밝혔으며, 이들을 위한 조금의 관용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초기보다 페기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랬던 것인지, 정치권에서 반페기다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자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는 페기다 토론회에 참석해 화제를 낳았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페기다는 이미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주의적인 표어와 게시문으로 손해를 야기했고, 이 때문에 독일의 명성에 금이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페기다와 대화는 없다"고 잘라 말하며 페기다 시위대가 해산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Spiegel, 2015년 1월29일).

페기다의 진짜 문제는 이슬람이 아니라 경제위기, 환경문제, 사회갈등에 있을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망의 해체 등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집단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여론조사에서 이들 페기다 조직에 대한 지지율을 발표하였는데, 동독인의 53%, 서독인의 48%가 페기다 시위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29%는 독일이 이슬람 영향권에 있으므로 페기다 시위가 정당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3%는 페기다 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Die Zeit, 2015년 1월1일).

3) 한국의 제노포비아 현상

강진구(2014;2012)는 한국의 반다문화담론에 대해 유럽의 정치인들의 '다문화 실패선언'이 한국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을 담론화하는 데 설득력을 갖는 근거가 되었다며 반다문화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반다문화담론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인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후 그 결과 서민 일자리 감소 및 임금인상의 정체, 인권문제, 임금체불,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흉포화, 외국인밀집 지역의 치안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매스컴을 총동원하여 외국인근로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이 불쌍하다는 식의 동정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국가안보의 위협,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인한 국내 치안부재, 혼혈인 증가에 따른 민족정체성 혼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다문화지원정책과 관련 법 제정, 서구의 다문화정책 실패사례, 외국인 노동자들의 송금으로 인한 국부유출 등을 지적한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제노포비아 역시 외국인 유입의 증가로 사회 구성원이 다양화되면서 제노포비아의 원인이론에 따라 이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접촉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외국인 범죄 보도 등의 영향, 정부의 다문화정책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동일조상, 전통,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며, 공동의 정치운명에 대한 집단적 경험을 공유한 경우 등이 있을 때 상대방과 같은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종족지향형(ethnic community) 및 시민지향형(citizenship community) 등으로 구분되는데 시민형은 국가를 법적 제도적 공동체로 이해하며, 공동의 법적 제도적 인식을 가질 경우 정체성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시민사회 지향적 특징을 지니는데(정기선, 이선미: 2010), 한국인은 종족지향적 성향이 강해 같은 민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노포비아적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에서 이주민을 자신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5.1%에 불과했다(안득기, 2011).

한국의 제노포비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 12월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는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하는 반외국인 시위를 국내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20~30대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운 판에 합법체류자가 아닌 불법체류자의 노조설립과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불법체류자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윤인진 외, 2010).

또한 최근, 정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 및 한국 최초의 귀화외국인 출신 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헤럴드경제, 2014년 1월 30일) 대표적인 한국의 제노포비아 집단인 반다문화카페는 전체 회원이 1만 명을 넘었다. 이들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망국으로 가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카페 설립목적으로 내걸고, 외국인근로자들 때문에 서민경제가 파탄이 나고, 인신매매적 성격이 짙은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순수 한국인 부부의 이혼율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허경미(2014)는 그의 연구에서 이러한 한국형 제노포비아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국적취득 요건을 좀 더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가 체류를 허가한 사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적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외국인 비하태도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지원단체 정비가 필요하며 초중고생 교과과정에 다문화 관련 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상별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적법의 재정비와 지원정책 개선 등 위에서 제시한 개선책은 이주민 통합정책으로 보이며, 제노포비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04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

1_제노포비아 인터뷰 개요

2_제노포비아 인터뷰 내용 및 분석

04 |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

1_제노포비아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남성과 여성이었다.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외국인을 상대로 일하는 경우로 나누었고, 한국에서 외국인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했다. 인터뷰의 내용은 첫 번째, 개인·사회·경제적 지위, 두 번째, 방어·순수·혐오 단계로 구별하여 제노포비아를 단계별로 구분하였고 이주민의 유형을 나누어 유형과 국적별로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4-1] 인터뷰 내용

개인적 요인, 사회, 경제적 지위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이주민 (부정적)접촉 경험 여부, 해외 경험 여부
방어, 순수, 혐오 단계 구별	당신은 한국에 살고 있는 특정 소수민족에게 적개심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나?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특정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특정 소수민족을 추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은 승인하겠는가?
이주민 유형별 태도	이주 목적과 이주민 국적별로 이주민을 분류하여 각 집단에 대한 태도

[표 4-2] 인터뷰 대상자

사례	나이	성별	직종	학력	해외체류경험
사례1	28세	남성	유통업	대졸	호주 1년
사례2	29세	남성	소매업	대졸	경험 없음
사례3	39세	남성	판매직	대졸	경험 없음
사례4	37세	남성	판매직	대졸	일본 3년
사례5	42세	남성	자영업	대졸	경험 없음
사례6	33세	여성	영업직	대졸	뉴질랜드 5년
사례7	31세	여성	회사원	대졸	뉴질랜드 2년
사례8	38세	여성	영업직	대졸	경험 없음
사례9	31세	여성	학원, 강사	대졸	경험 없음
사례10	26세	여성	외국계 기업비서	대졸	홍콩 2년

인터뷰 요청 시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외국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지와 특정 외국인 유형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질문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_제노포비아 인터뷰 내용 및 분석

1) 부정적인 접촉경험-직장

인터뷰 대상자들은 각각 일하면서 외국인을 고객으로 접하거나 함께 일하는 동료로 접하는 경우였다. 그들의 중국동포나 중국인에 대한 반감은 대부분 일치하였으며, 대부분 직장에서 동료로 외국인을 대하다가 갈등을 겪어 이것이 바로 특정국가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고객으로 외국인들을 상대할 때 예의 없음, 무례함, 개념 없음에 대해 토로하였고 동료로 외국인들을 상대할 때도 비슷한 이유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동포나 중국인과의 경험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중국동포나 중국인의 민족성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네, 같이 일하는 조선족이 두 분 계셨어요. 그 당시 통제를 잘 안 따르시더라고요. 관리자가 있으면 뭔가 지시를 내리는데 그걸 안 듣고 예를 들어 출근 같은 것도 가끔 무단으로 하고..... 한국 사람 중에는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어도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사례2)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객 상대를 하는데 외국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 동대문에서 일했을 때. 그래서 그쪽에서. 고객이 외국인이었는데 제일 싫었던 건 중국인... 조금 매너가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돈을 던져서 준다든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왔을 때는 시끄러운 경우도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민폐를 끼쳤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치우는 습관도 전혀 없는지.... 80%가 중국인이에요. (사례1)

중국 사람들만은 아닌데 동남아 쪽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요즘 용산에서 일을 하는데 휴일 되면 동남아 애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몰려다니면서 개념없는 행동을 가끔 해요. 예를 들면 뭔가를 자기 것이 아닌데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몇 개 도난당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흥정을 한다든가.....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요..... (사례2)

중국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 대만인인지 중국인인지 알 수 있어요. 우선 대만인은 조용해요. 조용조용히 말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일단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 (사례2)

직장에서의 경험은 대부분 중국동포나 중국인을 고객으로 대하는 경우였는데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 고객 중 중국동포나 중국인이 70~80%가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지 않으냐는 연구자의 질문에는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 인터뷰 대상자가 몽골인 두 명을 경험하고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다른 한 명은 같은 인터뷰에서 몽골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다.

알바생들이 외국인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몽골인이 2명이 있고 러시아인이 한 명이었는데 몽골 애들은 여자애들이었는데, 정말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네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매니저로서 너에게 부탁하는 거다. 그리고 외국인이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러는 거다. 꽤 많이 설득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싸워서 나갔어요. 러시아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나중에 되게 많이 틀어졌죠. 틀어진 이유도 제가 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아니요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장을 줬다가기보다는 대하는 태도가 많이 틀렸다고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분 상한 것도 있을 거예요. 몽골 사람은 몽골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애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트러블이라고 생각하는데 몽골 애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례2)

몽골인 두 명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인터뷰 대상자에게 다른 인터뷰 대상자가 몽골인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몽골인 두 명을 경험하고 몽골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며, 개인적인 경험인 것이 아니냐는 연구자와 다른 인터뷰 대상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듣고도, 부정적인 경험을 한 대상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대답하여 본인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몽골이 좋아요. 저희는 마을 개념이어서 동네가 다 서로 알거든요. 이삿짐센터 일꾼들이 다 몽골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단가가 안 나와서 못 쓰고 몽골인을 쓰는 건데 묵묵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사례1)

-지금 몽골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들으니까 어떠세요?(Q)

저는 알 길이 없죠. 제가 경험한 건 부정적인 거니까.(사례2)

그건 너무 개인적인 것 아냐? 두 명이니까? (사례1)

세 번째 경험하는 몽골 사람이 완전 다르다면 생각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세 번째를 못 만나봐서요.(사례2)

직장에서 외국인을 접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고객으로서의 외국인 또는 자신의 부하직원으로서의 외국인이다.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한국의 직장문화 안에서 외국인이 다소 한국식 직장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성격, 성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그들의 '민족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접촉과 경험을 통해 외국인과의 관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가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특정민족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는다. 직장에서 외국인을 경험한 인터뷰 대상자는 20~30대 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험한 것에 의존하여 결론지었다.

한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공동체 안에서 다수가 소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시선이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동체의 다른 유형의 소수자들에 비해 이러한 고정관념은 더 빠르게 자리 잡고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2) 부정적인 접촉경험-거주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이 많은 경우에 접촉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밤에 외국인이 몰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감을 느꼈고, 이것은 여성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었다. 늦은 시각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인 남성이 집단으로 몰려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다시 질문하였더니 매스컴의 영향으로 주로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인을 떠올리면 '잔인한 범죄'가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해 매스컴은 '외국인'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잔인한 범죄일 경우에 일반인들에게는 외국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공장 같은 게 있어서 노동자들이 많았고. 밤에 지나다닐 때 무서웠어요. 깜깜한데 외국 남자들 몇 명이 막 서 있으면 그냥 무서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면 제가 알아듣는데 외국 애들은 자기들끼리 술 한 잔 먹으면 여자 혼자 가거나 둘이 가면 자기네들끼리 막 지네 나라 말로 장난 같은 거 걸고 그런 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7)

그런데 중국인들에 대해 안 좋은 뉴스, 장기매매 이런 것 나오면 무섭고 싫죠.... 중국인들이 밤에 몰려만 있어도 무섭고.... (사례10)

매스컴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늦은 시각에 외국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는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한국인들이 떠나게 되고 더욱더 게토화 된다.

3) 해외체류 경험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체류국에서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었던 인터뷰 대상자는 캄보디아인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캄보디아인 경영주에 의해 부당하게 한국인들이 해고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 한국에 오면 편견을 갖지 말고 외국인을 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으나 한국에 와서 막상 외국인과 직장생활을 해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했다. 해외 체류 경험으로 인해 외국인을 많이 접해보았으나 그것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 민족에 대한 더 강한 선입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접촉이론에 따라 '접촉' 부재에 의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생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그런 건 있겠지만. 예전에 호주에서 식당에서 일할 때 사장이 중국분이어서 많이 왔는데 거의 다 예의가 없었어요. 습관인지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호주에서 살 때는 백인들(나이 든 어른들의 경우) 술 먹으면 아시아 애들한테 욕한다든가, 중고생들은 좀 많이 그렇고요..... 근데 한국에서 외국인들 만나면 친절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런 편견을 갖지 말자.... (사례1)

호주에서 농장에서 일할 때, 한국사람 스무 명인가 한순간에 잘렸었어요. 딸기농장인데 딸기를 따야 돈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힘들게 했는데 돈 벌 때 되니까 우린 다 자르고 캄보디아 애들이 싹 들어온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 들어오게 하려고.(사례1)

반면, 해외체류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인터뷰 대상자는 해외체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낯섦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2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장소와 사람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으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으나 이러한 공포심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다. 제안받은 나라가 '일본'이어서 비교적 한국과 문화적·환경적 거리감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나, 자란 나라에 계속해서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말했다. 익숙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서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예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겁나죠.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지 그런 것도 겁나고. (사례2)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뉴질랜드에서 다닌 한 여성은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던 일화를 들려주었고, 본인은 그곳에서 이방인이었으며 등록금도 현지인에 비해 몇 배 이상을 지불했는데 한국의 현재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심한 반감을 표시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사과 같은 것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먹던 사과 이런 것. 운전할 때 차에다 공 같은 것 집어던지고. 뉴질랜드 애들은 강하게 나오면 움찔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냥 똑같이 해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 사람 좀 많았고, 인식이 안 좋았던 게 한국 사람들 막 몰려다니면서 한국 애들 특히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니깐 한국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최신기계 이런 것 가지고 다니니까 뉴질랜드 애들이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완전 이방인 취급당했잖아요. 걔네 나라니깐.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에 대해선 나라에서 크게 해주는 것은 없어도 약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하는 거 그런 것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학비 내는 것조차도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지. 솔직히 미국 같은 곳은 그렇게 많이 안 내고 자기네 나라 애들의 열 배 이상을 내는데요... (사례6)

그녀는 뉴질랜드에 거주할 때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 또한 뉴질랜드인으로부터 물리적 공격도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본인도 똑같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경험하고, 당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사회 외국인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겼다. 남의 나라(그녀는 인터뷰 내내 남의 나라/내 나라라는 표현으로 일관하였음)에서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사람(그곳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모두 현지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강조)과 동등한 입장과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단순한 해외체류의 경험이 외국인에 대해 긍정적이며 열린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장기를 해외에서 보낸 경우 현지에서 겪은 본인들의 어려운 경험, 부정적인 경험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나 외국인과 한국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인터뷰 내내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현지인이 '갑'이며, 외국인은 '을'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갑/을 관계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외국인 집중거주지에서의 경험

서울의 유명한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인터뷰 대상자는 밀집지역에서 중국동포를 가깝게 경험한 이후로 중국동포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동포들의 특성으로 강한 자기주장, 시끄러움, 무질서 등을 꼽았다. 중국동포들의 집중거주 지역은 치안과 안전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으며 '특정 집단'이 함께 몰려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사무실이 바로 여기 저희 매장이라서요. 거의 한 70%가 중국인이죠. 일단 너무 시끄럽고 자기주장이 강해요. 사람들이 거칠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제가 이쪽 00동 와서 일을 한 게 2년 정도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겪어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 동네가 거의 완전 중국이잖아요. 간판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밤에 여기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한국 다른 동네 같은 경우 싸움이 나고 그러면 경찰이 오는데 여기는 경찰이 딱 차에서 내리면 방탄복을 입어요. 위험하니깐. 그리고 보면은 항상 낮에도 술 취해가지고.... 일단 목소리 톤이 높아요.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우기는 성향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러운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 동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용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력사무소 이런 곳에도 되게 많은데 새벽에 나가서 뽑혀 나가면 나가는 거고 못 뽑혀나가면 아침부터 술 마시는 거죠. (사례3)

인터뷰 대상자는 중국동포들의 체류제한 얘기를 꺼내며, 그들의 음식문화에 대해서도 '강한 향신료 냄새'를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강하게 부정하였다. 또한 이들이 자신들끼리 함께 모여 살고 거주하는 것도 이들의 민족성이라고 했다.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은 사회적 소외계층,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거주지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주거지역에서의 문제를 '중국동포'의 한 특성으로 분류했다.

여기만 봐도 진짜 체류제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절실히 느끼는 거죠. 일단 동네 자체도 위험해지고 솔직히 저는 여기 있어서 모르겠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향신료 냄새라고 하나??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 특성상 자기들끼리 뭉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중국사람 포함해서 뭉치는 습성이 강하고.. (사례3)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는 외국인을 특별히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이곳에서의 외국인과의 접촉은 '첫 번째'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동남아시아 사람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중국동포에 대한 반감이 커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일용직으로 사는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싼 동네에 와서 살다 보니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살게 되고.... 중국(동포포함) 사람들로 한정시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동남아 이쪽도 비슷할 것 같은데 중국보단 나을 것 같아요.(사례3)

한국보다 경제 후진국인 국가 출신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긍정하였으며,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으나 이곳에서 중국동포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졌다고 이야기했다.

어찌 됐든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차피 동남아 사람들 일하러 온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들만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따로 차별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여기서 중국 사람들 실제로 겪어보니까 확 달라졌어요...(사례5)

모든 모여 사는 동네가 이렇진 않겠죠. 일요일에 한번 와보시면 난장판이에요. 대낮부터 모든 술집에서 술 먹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마시긴 하죠. 길거리에서 싸우고 욕하고 길거리에 드러눕고 이렇진 않잖아요 .... 피해를 준 것 많아요. 제가 여기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중국 사람들 특성이 그렇잖아요.(사례3)

공공질서 안 지키잖아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빵빵해도 안 비켜요. 째려보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로 건너면 좋잖아요. 차가 다녀야 하니까. 얘들은 찻길로 다녀요. 연령, 성별 상관없이 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들어온 거예요. 일방통행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빵했어요. 근데 안 비키더라고요. 죽어도. 그래서 내려서 일방통행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조선족 동포가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꺼내서 막 찌르고, 칼부림 많이 나는 동네, 중국동포나 중국인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사례5)

반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는 일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었으며,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 그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지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한인 타운도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의 동료보다 외국인 집중거주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일본에서 본인의 체류경험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인 타운도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일본인들도 집중거주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해 비슷한 감정과 불편함 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3년 있었어요. 부인이 일본 사람이고. 중국동포들이 좀 드세요. 저도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근데 그게 외국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저도 일본의 한인 타운 같은 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느꼈던 건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동질감이 생겨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좀 있기는 한데.(사례4)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를 타면 떠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스텝별로. 치안도 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좀 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사례4)

5) 특정 국가/체류 유형에 대한 거부감

인터뷰 대상자들은 거주지, 직장에서 경험한 중국동포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고,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특정 국적에 대한 선호/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선호도와 반감도 대부분 일치하였다.

뭐 중국이 부담스러운 것 있죠. 말투라든가 딱 대면했을 때..... 위화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니깐. 일단 머리도 짧고 저희 같은 경우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깐. 저는 결혼을 했으니깐 그전부터 크게 거부감은 없었어요. 한국사람 외국사람 구분 없이 그때는 외국에 안 나갔을 때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사례9)

비자 확인 신분 확인 정확히 하고 처벌조항도 명확히 한다든가..... 가끔 여기서 막 범죄 저지르고 자기네 나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에서 제가 어학원 다닐 때 거기는 중국인은 아예 안 받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대만 갔는데 대만친구도 중국 애들이 오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것도 그렇고.(사례1)

특별히 싫은 국적은 없는데, 같은 외국 사람이 있을 때 아무래도 동남아 쪽은 좀 그런 건 있죠. 막말로 얘기해서 외국 사람이 좍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가서 누군가랑 얘기해야 한다면 이왕이면 서양권이 더 좋고 동남아 쪽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사례10)

6) 민족주의/인종차별주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본인의 의견을 말했다. 또한 부모가 양쪽 다 한국 사람이며, 한국에서 성장한 한국문화를 아는 사람만이 한국 사람이라고 강조했으며 도중에 타 국가로 가서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30대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좁게 해석하였고 본인들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에 대해서는 다소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는 민족주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최고다. 이런??(사례6)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인종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해요.(사례7)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문화를 배워야지.(사례9)

근데 도중에 다른 나라 가서 영주권 따고 그쪽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사례7)

반면,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는 본인이 한국 문화를 배워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인이 되어간다고 한다면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사례10)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외국인이라도 나 한국사람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한국문화 배워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사례10)

7) 이주민과의 경쟁

인터뷰 대상자인 한 여성은 결혼이민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결혼' 진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출산율 감소로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흔히 20, 30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결혼이민자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결혼이민자들은 솔직히 자기들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오는 거잖아요. 여자들을. 저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왜 한국 사람으로 대접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을 못하게끔 하니깐.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데, 출산율이 낮다고 여자들을 외국에 가서 수입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럼 진짜 자국민들 살게끔 해주던가.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할 환경, 애 낳을 환경은 안 만들어주면서 출산율이 낮다고 외국에서 여자들 데려와서 애 낳아주니까 고마워해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혜택을 많이 받은 부류는 정말 수입해온 여자들이잖아요. 내가 낸 세금을 왜 그 사람들한테 쏟아 붓느냐고요. 우리부터 일단 살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은...(사례6)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돈 벌고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특별히 나한테 해만 끼치는 거 아니면. 결혼이민자는 달라요. 한국 남자들을 뺏어갔어요. 피를 섞는 것도 싫고.(사례6)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대체인력이며 노동력 보완차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한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피를 섞는 것이 싫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니깐 약간 그 사람들이 싫은 건 그 여자들이 되게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명한 결혼이민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자기네 국적보다 우월한 국적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한국 여자들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네가 너무 잘났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냥 내가 결혼이민자만 만나봤나요? 그냥 뭔가 아니 이 동남아 사람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네들이 뭔가 잘났다는 생각 있는 것 같아요. (사례6)

그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계속되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또한 우월한 국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적'의 우월성을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이야기했으며,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국적보다 더 경제적인 수준이 나은 국가 출신의 사람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월감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잘나가면 여기까지 안 오죠. 여기 와서 그렇다고 뭐 진짜 대기업 같은 곳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장 같은 곳 다니고. 내 생각으로는 그 여자가 자기 나라에 있으면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방송 출연 몇 번 했다는 이유로 이 여자가 너무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방송에 몇 번 나왔다고 자기가 사람을 내리깔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방송 같은데 나와서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거나 그 사람들이 계기를 통해 방송을 타게 되면 자기네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스타 대접받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방송 몇 번 출연했다고 스타병 걸려가지고.. (사례6)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향한 한국 매스컴의 띄워 주기 보도도 그녀의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표현했다.

8) 다문화정책과 제노포비아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한 인터뷰 대상자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할 것 없이 정부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본인의 이주 경험과 비교하며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지나치게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제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깐.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 있을 때는 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솔직히 외국에 어느 나라 가봤을 때 다문화가 있어요. 외국에 가서 몇천만 원씩 학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는 거. 나도 굶어 죽겠는데....(사례7)

어차피 똑같은 학교 가는데 자기가 머리 나빠서 그런 거지. 이중국적 우리나라 애들 외국 가면 어려서 외국 가서 낳으면 똑같이 영어 해요. 게네들은 2개 국어 잘하지. 그냥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냥 먹고 살만하면,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은 많이 떼어가면서 그걸 남들한테 퍼주고 있잖아요.(사례10)

이들은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에도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자신이 낸 세금을 '남들'에게 퍼준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도 '외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05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1_소개
2_서울 A 고등학교 참여 관찰기
3_서울 B 유치원 참여 관찰기
4_다문화 이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5 |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1_소개

이주민과 선주민이 조화롭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다문화사회라고 말하기에는 민족주의, 순혈주의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퍼주기식 다문화정책은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강한 반감을 더 부추겼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이해' 등으로 선주민에 대한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교육이 이주민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 가족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 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목표로는 다희망라이프(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꿈만들기(다문화자녀 교육지원), 다화목 가족(건강한 다문화 가족관계 강화), 다행복사회(건전한 다문화 사회조성)가 있다.

다행복사회(건전한 다문화 사회조성)는 한국인에게 외국인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들과 조화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는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접해봄으로써 다른 국가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타파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기회를 제공하고, 외국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을 통해 성숙한 다문화 의식 및 글로벌 리더로서 소양을 높이고, 외국인 강사가 직접 들려주는 자국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 또는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며 타 문화 포용력 형성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서울 시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며 강사는 프랑스 등 30개국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 강사가 자국의 문화·역사 등을 소개하는 체험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6년간 총 3,384회

166,850명이 참여했다.

2015년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청소년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성숙한 다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출신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교육을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따라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정하였으며 강사는 프랑스 등 30개국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강사가 자국의 문화·역사 등을 소개하는 체험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운영실적은 2008년부터 6년간 3,384회 166,850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11년 이전에는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전문 강사를 선발·운영해 교육 횟수 및 교육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5-1] 2014년 운영실적

구분	교육횟수	교육인원	대상국가	참여학교
2014년	1,174	56,9453명	30개국	115개교
2013년	816	44,481명	34개국	109개교

전년에 비해 교육횟수는 44%, 교육인원은 22%로 대폭 상승하였다. 교육운영 성과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성숙한 다문화 인식 함양, 설명식 수업 대신 참여유도 체험 수업을 이용해 교육효과 제고, 분기별 유명이주민 특강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이다. 많은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2014년 1,174회 56,945명에서 2015년 1,300회 63,0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세계 각국의 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국가 다양화, 강사 역량 강화교육, 교구확보,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수업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세부 추진계획은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조기마감을 방지하고, 연중 수시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방법은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외국인 강사는 추가 선발을 통해 대상국가를 다양화하고 인력을 확대한 결과, 2014년 30개국 36명에서 2015년 41개국 45명으로 증가하였다. 강사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되며 1차는 서류심사이고 2차는 면접심사이다. 체험 수업에 필요한 소품, 교구 등도 보충되어야 하며 방법은 외국인명절행

사, 타운미팅 개최 시 기증을 받아 대여한다.

강사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올바른 교육진행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강사 간담회(연 2회)를 개최한다. 그 대상은 외국인강사 전원이고 내용은 교육진행 현황,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방식, 보완과제 및 개선방안 토의이며 연말에는 유공강사를 선발해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사 역량 교육 및 워크숍도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그 대상은 외국인강사 전원이며 내용은 우수사례발표, 교육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이다. 또한 서울정착에 성공한 유명 이주민을 초청하여 연 1회 특별강연을 실시하는데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이주민의 재능기부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 유명 이주민 강사를 통해 사업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활성화 및 지역별 수업배분 격차해소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교육 지원청 및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하고, 광고지,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관심을 유도하며 참여 학교와 유관기관 간 국제이해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질을 높일 수 있게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수업내용, 태도 등 참여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학교 및 강사 수업보고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 실시 후 1주일 이내 수업결과와 수업만족도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 미제출 학교 및 강사는 익월 교육신청 시 배정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교육실시 관련 홍보협조 요청, 지역별 편차 완화 관련 홍보 협조 요청, 교사 커뮤니티, 다문화 교육 사이트 등 홍보 내용 게시 협조 요청도 한다.

2_서울 A 고등학교 참여 관찰기

1) 배경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서울시 사업인「다문화 이해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학생들의 수업을 참여 관찰하였으며, 담당교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낸 기록물을 정리하였다. 참가학생은 26명이었으며, 외국인 강사가 직접 언어(스페인어)소개와 해당 나라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였으며 학생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도 좋은 편이었다. 특히 한국 광고 중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음식, 문화, 전통음악을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 소개했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시들해졌고,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 보이자 율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살사수업을 시작하였다. 이어 유명한 콜롬비아인(연예인, 축구선수)을 소개하였고, 콜롬비아 노래를 강사가 직접 기타를 쳐서 들려주니 학생들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림 5-1] 서울시 A 고등학교 수업 현장

그러나 콜롬비아라는 다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좀 더 깊은 문화이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낯섦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없애는 교육이라 해당국 교사를 통해 콜롬비아를 한번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가 친근하게 다가오고 '긍정적인' 경험을 한번 쌓게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수업이었다.

[그림 5-2] 서울시 A 고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나라소개

[그림 5-3] 서울시 A 고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마침

2) 기록

학생들의 기록물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에 대해 다소 낯섦, 부정적인 시각들이 교사와의 접촉을 통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케냐와 인도는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선 국가였으며, 특히 인도는 경제후진국, 미개한 나라, 여성차별, 신분제가 존재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수업을 통해 인도의 긍정적인 면들을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케냐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케냐라는 나라에 대해 전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실제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해줘서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 (사례1)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나도 모르게 신경을 잘 쓰지 않았었고, 그나마 몇 개 좀 알고 있었던 나라 중에서도 케냐는 없었다. 그래서 케냐에 대해 듣는다고 했을 때 신기했다. (사례2)

매번 다문화 교육을 할 때마다 했던 나라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우리가 케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다. (사례3)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케냐의 문화나 그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일들, 또는 우리나라와 차이점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중의 하나가 되었다.(사례4)

이번에 케냐 분이 와서 정말 좋았다. 아프리카라는 곳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낯설었던 흑인에 대한 거부감이 이번 수업을 통해 많이 사라졌다. 우리가 흑인이라고 무서워하거나 대답을 잘 안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례5)

오늘 강연을 통해 케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케냐에 대해 알게 되었다.(살례6)

흑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 편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 조셉 선생님을 봤을 때 생각보다 피부가 엄청 까매서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들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편견 같은 게 많이 없어져서 좋았다. (사례7)

이번 강연을 통해 흑인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이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케냐 즉 아프리카 지역도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아프리카가 여럽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자연/전통과 신도시가 어울린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사례8)

앞으로도 이렇게 낯선 국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면 좋겠다. (사례9)

지금까지 했던 강연 중에서 가장 소통도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았다.(사례10)

그동안 케냐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케냐를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11)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프리카도 우리나라와 다른 게 없다는 것을 느꼈다. 흔히 말하는 문화절대주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의 문화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의 문화는 쓸모없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아프리카의 문화도 하나의 소중한 가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례12)

익숙하지 않다고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고 배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면 좀 더 폭넓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글로벌 사회에 발맞추어 앞서 나가는 리더의 자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사례13)

내가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프리카의 나라를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이 강의로 케냐가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느꼈다. (사례14)

이런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타 문화를 많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사례15)

인도란 나라는 내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인도를 그냥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도가 실생활에서 종교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례16)

평소에 인도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위생도 안 좋은데다가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하고 범죄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도에 배워야 할 덕목인 것 같다. (사례16)

인도라고 하면 여려운 나라, 아직도 신분제가 있는 나라 등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머리 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진 것 같다. (사례17)

원래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으로 여겨서 미개하고 그중에서 잘난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진로 수업을 듣고 나서 인도는 문명적이고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18)

3) 담당교사 인터뷰

2013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교사는 해외거주 경험이 있어 강사와 소통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진로탐색 교육의 하나로 생각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Q)

-나라별로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한번 했던 나라는 다시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절반가량이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며 외국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무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호·기피하는 국가가 있나요?(Q)

-학생들은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는 별로 선호하지 않으며 왜 유럽 선생님들이 오지 않느냐며 불평을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 그다음이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순입니다. 경제후진국이며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국가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프리카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학생이 한 번 질문을 했어요. 왜 아프리카와 남미는 못 사는데 행복해 보이냐고. 그다음 선생님의 답에 저희 모두 감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이다." 그날 저도 학생들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나요(Q)

-한번은 베트남 교사가 "우리나라 볶음밥 맛있다. 한국 볶음밥 맛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왜 문화를 비교하느냐?"라고 대답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나요(Q)

-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참여유도 공문은 내려오나 담당교사의 관심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교육이 애국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선점은 없나요(Q)

-특별히 개선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업이 담당 선생님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원생이나 그런 경우에 수업준비가 별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2~3년 전에 썼던 자료를 업데이트 없이 그냥 쓰거나. 아무래도 대학원생들은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이 일에 대한 열정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_서울 B 유치원 참여 관찰기

서울의 한 유치원은 꾸준하게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와 진행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는 가능한 다양한 국가의 강사를 두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한 반면, 유치원 원생들은 낯섦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많아 새로운 국가의 강사가 오면 다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한번 했던 강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림 5-4] 서울시 B 유치원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시간

[그림 5-5] 서울시 B 유치원 다문화 이해교육: 전통의상 입어보기

방문 날은 네팔 출신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전통 의상 입어보기, 국기 소개하기 등 네팔이라는 나라 소개가 대부분이어서 앞서 A 고등학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담당 강사는 한국 체류 기간이 꽤 길었으며 한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원생들은 강사에게 친근한 반응을 보였으며 수업시간이 종료되자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업시간 중간마다 "왜 이렇게 까맣게 생겼어요?". "네팔 사람 못생겼어요."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다.

담당강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여 한국과 네팔에 대해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하여 원생들이 대부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유치원생들은 흑인(몸집이 크면 더욱)에 대해 공포감을 느낀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어느 날은 한 원생이 1시간 내내 울음을 터뜨려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치원생들은 한 강사가 계속해서 한 유치원에 방문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했다.

4_다문화 이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외국의 문화를 단순히 체험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교육의 본 목적에 맞추어 상호존중과 다문화의식 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편견해소와 상호존중, 성숙한 다문화의식은 단순히 해외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인권교육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5-2] 다문화 이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비고
수업신청의 온라인 선착순 마감으로 학교별, 지역별 수업 배분 불균형 현상 초래	각 자치구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소외된 지역에 교육 혜택 제공	신규학교 우선적으로 수업 배정
교육 수요에 비해 체험용 각국 전통의상, 소품 등 부족	시 예산으로 전통의상, 소품 등의 구매 및 대여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 다문화 가족의 각국 소품 기증을 받아 대여해 주는 방안 고려	
교육대상 국가 다양화 필요	추가 선발로 2015년 45개국 45명으로 외국인 강사 풀 확대	15개국 15명 추가 선발

주: 서울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내부자료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현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식, 무의식적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해야 하고 토론학습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여 '문화소개' 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이것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장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직장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한국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06

결론

1_연구결과

2_정책제언

06 | 결론

1_연구결과

낯선 이들 이방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 두려움, 낯섦에서 탄생하는 이러한 제노포비아는 외국인을 향한 선주민의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소수자를 겨냥한 것이다. 제노포비아의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혐오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국사회가 이런 소수자들에 대해 구성원 각자가 '관용'을 갖게 될 때 이러한 갈등담론은 불필요하게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특정국가/민족에 대한 선호도와 반감이 확실하게 존재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국동포와 중국인의 행동양식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국동포의 민족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둘째, 해외체류 경험과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제노피비아적 성향이 더 심화할 수 있다. 어릴 때 해외에서 체류 시 인종차별을 경험한 한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인종차별을 경험하였으나 그것을 극복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동료, 거주지의 이웃으로 외국인을 직접 대한 경험이 부정적일 경우에도 특정 집단/국가에 대한 편견으로 자리잡았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몽골 사람 2명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성향을 몽골인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으로 결론 내렸다. 반면, 일본에서 한인 타운을 경험한 한 대상자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며 집중거주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셋째,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인들은 체류하는 외국인이 낯선 이방인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것은 서구사회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한국 매스컴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들도 한국인들의 제노포비아적인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중 다문화 이해교육을 참여 관찰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화시킨다면 현대사회의 제노포비아 문제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2_정책제언

1) 시민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화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중 다문화 이해교육을 참여 관찰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노포비아 접촉이론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제노포비아적 성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나 이러한 단순 경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정적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민족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직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접촉 기회가 많은 구성원은 은퇴자, 전업주부 등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현재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국적과 전문성을 더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A 고등학교 담당교사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프로그램의 강사 역할이 중요하다. 강사가 얼마나 수강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공감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 단순히 경제후진국, 미개한 문화로 학생들에게 알려진 인도와 케냐라는 나라에 대한 조금 달라진 시선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나라 출신 강사가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문화를 다양하게 소개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강사 인력 풀을 더 다양화시키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중국동포 집중거주 지역의 질서교육, 치안 강화

중국동포 집중거주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시민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인들은 중국동포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며, 이것은 집중거주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외국인, 동포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에 무지하여 한국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일본의 한인타운에서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인에 대한 감정과 한국의 중국동포 집중거주 지역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중국인에 대한 감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동포 집중거주 지역에 대한 현재 한국인들의 인식과 이미지는 범죄, 무질서, 소음, 알코올 등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들로 표현된다. 따라서 현재 중국동포 집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 질서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바탕으로 집중거주 지역을 문화거리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반제노포비아 캠페인

현재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노포비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페기다(Pegida) 조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일 때마다 '반페기다' 조직의 시위 또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언론을 통해 페기다 조직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제노포비아 현상이 언론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원하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NGO를 중심으로 반제노포비아 캠페인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5) 주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친화 책자 발간

선주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많다.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에서부터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 외국인의 범죄율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담은 '이해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6)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활성화

현재, 서울시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이주민의 통합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한국어 교육 등은 통합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옆집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에서는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주민의 특성과 이들의 문화자본을 고려하여 한국인과 함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진구, 2012,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34.

강진구, 2014,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5,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7~37.

김경근, 2015, “한국 성인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과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발표집, 35~66.

김남국, 2010,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영국, 프랑스, 미국 비교 연구”, 『유럽연구』 28(3), 133~174.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 한국사회조사연구소, 169~206.

김용신, 2012, “제노포비아에서 포용으로: 다수로부터의 하나”, 『비교민주주의연구』 8(2),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163~182.

김용신, 2014,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과 지표의 구축”, 『국제지역연구』 18(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73~199.

김혜순·이시철, 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89~114.

안득기, 2011,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과 신념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26(2), 동북아연구소, 203~219.

안상수, 2012, “다문화 수용성과 젠더”, 「젠더리뷰」 25, 42~52.

오영삼·남성희·윤수경, 2014,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2), 한국보건사회연구, 424~452.

원숙연, 2011, “인종적 소수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영향 요인: 적극적 조치와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327~351.

유승무· 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201』, 한국사회역사학회, 275~311.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143~192.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경기: 이담북스.

이명진·최유정·최샛별, 2010,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이자형·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1~24.

이자형·김경근, 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53~77.

이자형·박현준·김경근, 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한국교육」 41(3), 5~34.

임종헌, 2006,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한독사회과학회, 55~82.

장명학, 2006, “독일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통일 이후의 사회, 경제적 불안과정 제노포비아의 확산”, 『사회과학연구』 14(2),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24~359.

정기선·이선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9(1), 국제비교한국학회, 45~73.

조동기,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화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3(3), 53~73.

허경미, 2014, “한국의 제노포비아 발현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 논총』 9(1),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33~259.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 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achetti, L., F. Rossetti, and S. Castriota, 2010, “Real household income and attitude toward immigrants: an empirical analysis”, ‘The Journal od Socio-Economic’ 29, 81~88.

Bavin, Peter S., 2007, “Social Geography of Xenophobia and Tolerance”, **Russian Politics and Law** 45(4), 56~77.

Brown, Wendy, 2010, Regulating aversion :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이승철 역, 2010,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리.

Federico, C., 2005, “Racial perceptions and evaluative responses to welfare: Does education attenuate race-of target effects?”, **Political Psychology** 26(5), 683~697.

Kraus, N., Herrera, Y., 2010, “Xenophobia Nationalism in Russia: A multilevel Analysis of Xenophobia and its Relationship to Nationalism”, **APSA 2010 Annual Meeting Paper**.

Ommundsen, R., Yakushko, O., Veer, Kees VD., and Ulleberg, Pal, 2013,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related xenophobia perceptions of out-group entitativity, and social contact in norway”, **Psychological Reports** 112(1).

Shore, Cris, 1997, “Ethnicity, Xenophobia and the Boundaries of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4, 247~262.

Steenkamp, Christina, 2009, "Xenophobia in South Africa: What Does It say about Trust?", **The Round Table** 98(403), 439~447.

Vedlitz, A. and S. Zahran, 2007, "Theories of ethnic social distance: Cinoparative emprical tests for three distinct ethnic groups", **Sociological Spectrum** 27, 585~603.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dresden-pegida-abspaltung-meldet-demo-mit-5000-teilnehmern-an-a-1015733.html Spiegel Online

http://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5-01/umfrage-islamisierung-pegida-afd Zeit Online

작은연구 좋은서울 15-05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10월 9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